

## 이야기하기 (Storytelling)를 통한 과잉행동아동의 상담사례

김 경 숙  
(부산교육대학교)

학교에서의 친구,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마주 대하고 있는 상대방과 얼마나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 관계의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힘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 실제 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의 공격적 행동과 과잉행동이 유의미한 공동체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동들이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타인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적 수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상담사례에서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성이 강한 K군에게 이야기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행동을 깨닫고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자기행동의 변화방법들을 안내하고자 하였다.

### 1. 내담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 K군(남)

나. 연령 : 만 11세

### 2.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형, K군 네 식구가 생활하며 아버지는 유리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K군을 무척 아끼고 귀여워한다고 했다. K군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었고 한 번씩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는 매를 들어 잘못을 꾸짖으며 체벌하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 불만이 컸다.

어머니는 집 부근에서 작은 수퍼를 운영하며 K군에 대해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하며 준비물, 숙제 등을 K군의 가방을 어머니가 직접 살펴보고 챙겨줄 때가 많은데 이것이 자기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은 중학교 2학년으로 K군이 가족 중 가장 두려워하고 부모님이 낮에는 집에 안계시는 관계로 형제간에 함께 있을 때 K군에게 주로 일을 시키며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주 때리기도 한다. 형은 몸이 크고 성격도 우수한 편이라 부모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했다.

### 3. 상담경위(내담경위), 외모 및 행동관찰

K군은 얼굴이 희고 체격이 왜소하여 4학년 정도의 체격을 가졌다. 학기초 공부시간이 되어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독서교육실에서 좋아하는 책만 읽다가 아이들이 데리러 가면 오곤 했는데 작은 불만에도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치거나 종이찢기 등의 특이행동을 계속 되풀이 하곤 했고 코딱지 파기나 코를 별름거리기, 입술치켜 올리기 등 아이들이 혐오스러워하는 행동을 하며 주의를 끌기도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 아이였다.

친구가 무조건 자신을 싫어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피해의식과 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는 무책임함, 작은 일에도 울거나 화내고 소리지르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행위(책읽기, 색종이 자르기...) 등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가. 행동면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코를 잘 후비고 코딱지를 먹기도 했으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행동을 일부러 하고 친구가 조금이라도 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날 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오른쪽 윗입술을 뒤집어 올리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자기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재어놓거나 흐트러놓고 몸을 움직여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며 말이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친구들의 오해를 자주 사기도 하였다.

#### 나. 학습면

날말이해, 수학적 이해력, 연산력, 영어회화능력, 기억력 등은 좋으나 사회현상, 문맥의 이해, 관계, 예체능부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학습과제 처리가 안되었다.

**다. 정서면**

타인의 놀림이나 부정적인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갈등의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흥분을 잘하고 잘 울지만 친구의 사과에 마음을 잘 풀기도 하는데 급한 성격 탓에 차분하게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의 반응을 거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4. 내담자 호소내용**

- 가. 다른 친구들이 자기에게 먼저 시비 걸고 놀리며 싫어한다.
- 나. 동네에 사는 어린 후배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려서 화가 난다.
- 다. 공부시간이 되어도 공부하는 것보다 책만 보고 싶다.
- 라. 체육시간에 밖에 나가기 싫다.
- 마. 화가 나면 코를 벌름거리고 입술을 치켜올리게 된다.
- 바. 가만히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코를 파게 된다.

**5. 상담자가 본 문제**

- 가. 자기의 행동에서 친구들이 혐오스러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 나. 습관적으로 코를 파거나, 화 날 때 입술을 치켜 올리거나 코를 벌름거리어서 타인의 혐오스러워하는 반응을 관심으로 오인하며 스스로 즐기는 경향이 있다.
- 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급우, 교사, 후배, 형과의 관계맺음 즉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
- 마. 학교에서의 학습과제, 숙제, 일기 등의 활동과제를 전혀 하지 않고 준비물도 잘 갖추어 오지 않는다.
- 바. 영어, 수학교과 이해력은 좋으나 국어, 사회, 과학 등 사회 현상 이해력은 많이 뒤떨어진다.

**6. 상담기법 및 상담전략**

가. 상담기법: 이야기하기(storytelling)

나. 상담전략

- 1) K군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한다.(마음 속 응어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2) K군이 지닌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자기이해 및 변화를 돕고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키우고자 한다.(긍정적 강화)
- 3) 시간조절, 행동조절의 필요성,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내마음의 조종사” 를 이야기 모티브로 사용하여 적절한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역할바꾸기 등 훈련을 통해 실천의지를 키운다.
- 4) 친구 및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옛이야기 등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므로 공감력 키우기에 적당한 이야기를 찾아 들려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하게 해서 이야기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보고자 한다.

## 7. 상담진행과정 및 개요

제 1회 상담 (9월 8일, 수요일, 14:00~14:50)

주제 : 상담에 관한 안내-상담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T: 오늘부터 수, 금요일 6교시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걸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어땠니?

C: 떨리고 그랬죠. 뭐,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아주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T: 다행이구나. 상담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가지런히 정리해 보는 것이란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아픈 곳을 고치듯이 너의 마음속에서 너를 아프게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나 나와 함께 살펴보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새로 심어보는 시간이지.

너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C: 문제가 많죠. 화 잘 내고 소리지르고 입술 올리고, 공부시간에 공부도 안하고...

T: 언제부터 그랬다고 생각하니?

C: 2학년 때 전학왔는데 그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3학년 되니까 아이들이 나를 보고 막 놀리고 선생님은 공부시간에 잘 못한다고 혼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소리로 울면서 소리지르고 화내고 그랬어요. 4학년이 되어서는 그냥 교실에 아예 안들어가고 학교 오면 독서교육실에 혼자 앉아 책만 보고 있었죠.

- T: 혼자서 책만 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있을 때 네 마음이 어땠었니?
- C: 아이들이 모두 나를 놀리고 싫어하니까 나도 마음을 잡고 포기를 했었죠.
- T: 평상시 아버지, 어머니와의 사이는 어떤지 알고 싶구나.
- C: 엄마는 내 물건들을 안 챙기고 정리를 잘 안한다고 화를 많이 내시구요. 아빠도 술 마시고 들어오면 화내시고 그래요. 그럴 때 아빠가 너무 미워요. 며칠 전에도 술 많이 드시고 들어와서는 형하고 저한테 소리지르고 화내고 그래서 형이 한마디 했다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때 난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 T: 형이 맞는데 속이 시원했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구나.
- C: 평소에 형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순위 1위가 형이에요. 맨날 자기는 형이라고 나보고 다 시켜먹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셨는데 난 운 좋게도 아빠가 오시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 T: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니?
- C: 회사일 하세요. 예전에 아빠 일하시는데 따라 가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 T: 평소에 제일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 C: 그야 엄마지요. 잔소리하고 화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지요.
- T: 참 행운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지?
- C: 2학기 들어와서 준영이랑 태근이랑 같이 잡기놀이하면서 함께 놀았던 일요.
- T: 그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혼자 노는 것 보다 훨씬 더 즐겁지. 친구와 함께 노는 기쁨을 찾아서 다행스럽고 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내야 할 것 같구나.

현재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 평상시의 정서상태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의 기억, 부모님의 양육태도,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예전보다 학급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힘이 커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본 시간이었다. K군 자신도 친구와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의 필요성이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느껴 본 상태였기 때문에 이야기로 상담하면서 더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본인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제 2회 상담 (9월 10일, 금요일, 14:00~14:50)

### 주제: 내 마음의 조종사(자기이해 및 수용)

- T: 나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달라지고 싶니?
- C: 제대로 공부하는 태도 가지는 거요. 저 물고기하고 만짓하지 않는 거요. 저 물고기들을 버

리고 싶은데... 또 공부시간에 만화책만 보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거요.

T: 너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라는 말이지?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넌 친구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니?

C: 그냥 이정도면 족해요. 태근이, 준영이, 성진이, 태원이하고도 놀았거든요.

T: 친하게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아졌네. 그래서 ‘이정도면 족해요’ 하는구나.

C: 네. 한 64%정도는 채워졌어요.

T: 그 밖에도 우리반 친구들 많은데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보면 안될까?

예전에는 여자애들이 너를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적 없는 것 같던데... 요즘은 전처럼 코 파거나 그렇게 안하니까 친구들이 덜 피하지?

C: 그래도 코가 근질근질해요.

T: 코안에서 근질근질이가 자꾸 너를 부르지. 네 마음을 스스로 잘 조절해야겠지.

C: 그런데 선생님, 나 시 하나 지어볼까요?

친구-96은 좋겠다, 가장 친구가 많으니, 약수가 10명도 넘으니 1은 안좋겠다. 한명도 친구가 없으니 왕따가 될 수 밖에. 약수가 1개 밖에 없으니.

T: 야, 정말 멋진 시를 즉흥시로 술술 읊어내는구나. 너는 어떤 수가 가장 좋아?

C: 27요. 27은 약수가 3개니까 나도 친한 친구가 3명이니까

T: 그렇구나. 그런데 네가 친구들과 사이가 안좋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C: 울거나, 화내거나, 소리지르거나, 코 벌름거리거나 그랬죠.

T: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건 누구의 힘이었지?

C: 내 마음의 힘요.

T: 그래, 네 마음의 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종이접기, 책읽기를 좋아하지만 공부시간이 되면 그걸 조절해주는 마음의 조종사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는 공부시간이야” 하고 벨을 울려주는 조종사를 만들어보자.

K군이 계속 물고기 오리기와 책보기에 몰두하다가 공부시간 준비하거나 학습과제 해결하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상담자가 ‘내 마음의 조종사’를 찾아내서 자기힘으로 잘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는 말을 하자 K군이 마음의 조종사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며 요즘 화내는 마음을 조종하는 조종사, 입술올리기, 소리지르기 조종사는 자기 역할을 조금씩 해내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보이고 있는 공격적인 말, 행동, 울기, 소리지르기, 입술근육올리기 등의 행동조절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3회 상담 (9월 15일, 수요일, 14:00~14:50)

주제: 내 마음의 얼굴 그리기(자기이해)

T: 지난 시간에 말했던 '시간벨을 올려주는 내 마음의 조종사' 는 잘 찾고 있니?

C: 아직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T: 그 조종사는 네 속에 원래 자리잡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것들에 가려서 잘 안보이는 것 뿐이야,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아 깨끗이 만들면 밖이 잘 보이듯이 네 마음을 잘 닦아보면 그 조종사가 보일거야. 사람마음에는 그런 조종사들이 모두 있거든. 오늘은 요즘 너의 마음에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 마음들을 그림으로 한 번 그려보자. 너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네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으로 그려보렴. '내마음의 얼굴' 그림이야. 이제 마음의 얼굴에 대해 소개를 해줄래?

C: 오늘 태근이, 영진이와 구름사다리에서 놀았는데 재미있기도 했지만 화가 많이 났었어요, 들어서 치사하게 나만 슬래가 되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리에 뿔이 나는 것 같고 눈물도 나고 입뻘죽이도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나, 안해" 하면서 소리치고 그랬죠.

T: 그랬구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 건 좋은데 너무 화가 났었구나. 2번 그림은 무슨 기계 같은데 이걸 무얼 나타낸 거니?

C: 내 마음의 조종사들이에요. 1조종사는 '화 가라앉히기 조종사' , 2조종사는 '공부시간에 딴짓 하지 않기 조종사' , 3조종사는 '공부열심히 잘하기 조종사' , 4번 조종사는 약속지키기 조종사 '인데요, 4조종사는 아직 자리에 못앉았어요. 아직 잘 안되요, T: 3명의 조종사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보기좋구나. 조종사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너의 마음이 대견스럽구나. 그럼 오늘 하루를 지낸 마음은 어땠는지 그려볼래?

C: 기분 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화난 얼굴 말고 웃는 얼굴을 그릴 수 있겠어요.

T: 다행이다. 4번 그림에서 '9999빌딩' 을 그린 이유를 알고 싶구나.

C: 이 건물은 99층이구요, 있는 사람은 9999명인데요, 그런 이유는 내 마음에 많은 사람이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T: 아, 그랬구나. 이제 조금씩 너의 마음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구나.

오늘 네가 그린 마음의 얼굴들을 보니까 너의 생활이나 마음 움직임이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네가 아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너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뜻이어서 좋은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놓이는데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 시간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시간에 약속을 정하도록 하면 좋겠구나.

오늘 이야기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니?

C: 친구와 약속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시원해요.

J군이 자신의 주된 감정을 마음의 얼굴로 표현하면서 화가 난 것을 큰 얼굴로 표현한 것을 보고 아직 분노조절이 잘 안되어 친구의 작은 실수나 자신에 대한 반응에 화를 크게 내고 친구의 반응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표현의지는 강해져서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다른 아동들과의 마찰이 표면적으로는 더 잦아진 것 같이 나타났다. 상담시간을 기다리던 1,2회기와는 달리 초조한 모습으로 빨리 가야한다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이유를 물었더니 약속때문이라해서 친구관계가 좋아진 점을 격려해주면서도 상담시간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더니 K군도 흔쾌히 약속을 하였다.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함이 받아들임을 배우게 한 것 같았다.

**제 4회 상담 (9월 23일, 금요일, 14:00~14:50)**

**주제: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자기이해)**

- T: 지난 1주일 동안에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등장했었니?  
C: 화나는 마음요. 친구들이 자꾸 놀려서 화내고 울고 그랬어요.  
T: 그래,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많이 났겠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니?  
C: ... 아이들이 나를 놀려서 그렇지요. 내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았는데...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없어지게 하다니 그 애들이 미워요.  
T: 다른 아이들도 내가 가져온 그런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던데... 그걸 내가 보이니까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하거나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 아닐까?  
C: ....네..(작은 소리로 대답했지만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자기잘못을 부정하지는 않고 자신의 책임성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  
T: 참, 얼마전부터 너 물고기오리는 것 안하더라. 책임기도 조금 줄였고. 오늘은 공부시간에 거의 다 정리할 것 다 적었지? 네 마음의 시간을 알려주는 조종사를 찾은 것 같아 기쁘구나. 오늘은 이 색종이로 내가 접고 싶은 것을 먼저 접어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T: 지갑을 접었구나. 지갑을 접은 이유가 뭔지 궁금한걸.  
C: 이 지갑 속에 내 장점을 하나씩 생각해서 적어 모아둘려구요.  
T: 아, 멋진 생각을 했구나. 다음 시간까지 찬찬히 하나씩 생각해서 모아서 나에게 이야기해줄렴. 그럼 네가 접은 이 지갑을 보고 떠오른 사람이 누구니?  
C: 음.... H가 떠올랐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난 H가 귀여워서 좋아요.  
T: 조금 뜻밖의 말이구나. 난 저번에 네가 우리반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다고 말



하는 걸 듣고 누구를 좋아하는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장점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른 사람을 좋아해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거지.

C(J): K는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시원하게 그대로 말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맨 날 비꼬아서 말하고 숨겨서 말하고 웃기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되게 하거든요.

T: J가 K에게 꼭 필요한 점을 잘 찾아서 말해주는구나. K가 자기마음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잘 표현하면 친구들이 너를 더 좋아하게 되겠지? H가 좋다고 했지? 네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H가 기분이 좋으려면 내가 달라져야 할 게 뭘까?

C: 화를 안 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요. 이상한 소리도 안내고 그러면...

T: 그렇지. 네가 지금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H도 네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거야. 지금 너의 옆에 J가 잘 도와주고 있으니 잘 안될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 화나는 마음조절하기, 공부시간 딱 짓하려는 마음 조정하기를 잘하면서 조금씩 달라져보렴.

2회기 때 우리반 여학생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도 관심없었던 말과는 다르게 종이로 접은 지갑을 보면서 가장 먼저 좋아하는 여학생을 떠올리는 것을 보고 K군 자신의 감정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라는 점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자랑거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더니 K군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지금보다 달라지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고,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J군이 포용력이 큰 아동이라 K군의 어린 생각도 잘 집어주고 고치도록 돌려해주는 고무적인 상황이어서 발전이 기대되었다.

#### 제 5회 상담 (10월 2일, 금요일, 14:00~14:50)

주제: 두왕자 이야기(부모님 공감)

T: 어제는 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없어서 나와야 이야기시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참 서운하더라.

C: 그게 아니라 어제는 친구랑 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T: 그래, 친구와 사이 좋게 노는 너의 모습을 보는 건 나도 좋지만 나와야 약속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두 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인도의 신화 중 '가네시와 마루하' 이야기를 들려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니?

- C: (놀랍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형이 참 지혜롭네요. 몸은 뚱뚱하고 볼품없지만...
- T: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 왕과 왕비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 C: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 T: 나도 부모니까 생각해본건데 만약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었다면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 왕과 왕비도 큰 아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잘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잘 헤아려주니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겠니?
- C: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 T: 너는 집에서 부모님께 그 큰 아들처럼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드리는 편이니?
- C: 아뇨, 못 그래요. 그리고 우리 형도 그 큰 아들처럼 안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나에게 시키기만 하고... 그래서 형만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요.(형 얘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임)
- T: 많이 억울했나보구나. 서로 조금 더 자라면 달라질 수도 있지. 네가 형에 대한 미운 마음만 키우지 말고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의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C: 그럼 바로 얻어맞는데요. 우리 형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 T: 그랬구나. 그래도 얻어맞더라도 네 마음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면 형도 조금씩 너의 마음을 알고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가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왕의 큰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준 것처럼 말이야.

J와 짝이 되어 하루 정도 지나자 심한 장난을 걸고 받고 하면서 모둠 및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내심 K군의 학습태도나 대인관계 향상에 기대를 걸었던 상담자를 실망시켰던 상황이었다. 또한 10월1일(금) 상담시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가버려서 실망스러웠다는 점과 그래도 친구와 사이가 좋아진 증거이니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격려해주었더니 상담시간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 헤아려보기를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이야기 주인공의 지혜로움을 알았지만 부모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마음을 찾아내는 건 아직도 K에게는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 6회 상담 (10월 6일, 수요일, 14:00~14:50)

주제: ‘네 장사의 모험’ 이야기(자기긍정 및 자신감)

T: 네 장사의 모험 이야기에 나온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드니?

C: 바윗손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오줌손이는 냄새나게 그게 뭐예요?

- T: 얼핏 생각하면 그게 뭐 자랑인가 싶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피하고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 같지.
- C: 그렇긴 하네요.
- T: 만약에 네가 이 장사들 속에 끼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일을 한다면 너는 너의 어떤 특징을 도움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너의 이름을 지어볼래?
- C: 음, '입술손이' 요. 다른 아이들이 내가 입술 올리는 걸 보고 재미있다고 막 웃어요. 신기하다고 하고요.
- T: 아, 그렇지. 아이들이 보고싶다고 할 때 장기자랑으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보여주면 장기가 되겠네. 오줌발이 세서 고민이었을 오줌손이가 자기의 그 오줌 때문에 적을 물리칠 수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 C: 기분이 엄청 좋았겠지요.
- T: 너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네가 단점이라 여긴 일이 너를 자랑스럽게 해주는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말아야. 너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너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
- C: 뭐, 영어랑 수학 잘하는 거, 책 많이 읽는 거랑, 종이접기 잘하는 거요.
- T: 자랑스러운 점을 계속 찾아보면 더 생길 것 같다. 계속 잘 찾아보자.
- C: 그런데 아이들이 나를 잘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해요.
- T: 참 그랬다고 했지. 섭섭했겠구나. 아이들이 한꺼번에 너를 쉽게 잘 인정해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까지 네가 행동해온 모습에서 믿음을 잘 못 느꼈을테니까. 차근차근 네가 잘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인정하게 만들어 가야지.

친구와 다투거나 울고 소리지르는 행동,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1일 1~2회정도로 줄어들었고 모둠활동을 할 때도 개별로 역할지도를 한 번 더 해주었더니 자기가 맡은 과제를 제대로 해 내는 성과를 보였다. 이에 자신에 대한 발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자 “네 장사의 모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인정에 대한 의지를 가져보도록 시도하였는데 단점인 줄 알았던 면이 그 사람의 장점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K군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모습이 보였다.

#### 제 7회 상담 (10월 8일, 금요일, 14:00~14:50)

주제: 선생님 때문에 화났어요(수용 반응과 수용함)

- T: 1주일전에 비해 어제, 오늘 너의 생활 모습에서 큰 소리로 화내거나 우는 모습이 줄어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 C: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복도 뛰었다고 벌 선 것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

때 자리에 들어와서 분노가 폭발한 거 안보셨어요?

T: 보았지. 그 때 복도에서 뛰거나 놀이를 한 사람은 모두 벌을 썼는데...?

C: 난 억울했던 말이에요. J가 먼저 잡기놀이하자고 했고 또 H랑 J는 날 독서교육실에 가둬놓고 문 잠그고 그랬는데...

T: 넌 그게 무척 억울했나보구나.

C: 네,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선생님은 누구때문인지 그 원인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똑같이 벌 세우고... 그건 불공평한 거 같아요.

T: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났었다니 물어보지 않아서 미안하다.

C: 그럼 됐어요.

T: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 네 잘못은 인정을 안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C: 내 잘못도 있죠. 복도에서 뛰어 다닌 거요.

T: 우선 네가 복도에서 뛰어다닌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너 아까 화났을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지?

C: 입술올리고 책상두드리고 소리내고 그랬어요.

T: 그 화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예를 들면 벌 설 때 손을 들고 나한테 “선생님, 전 억울해요. 영진이가 장난을 걸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유를 먼저 또렷하게 말했다라면 좋았을걸...

C: 그게 잘 안돼요. 화가 나면...

T: 그럴 때 네 마음의 조종사가 필요하지. 요즘 너의 행동을 스스로 잘 조절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눈 여겨 보고 있어. 오늘도 J때문에 화가 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더구나.

C: 선생님이 부르기 전에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얼른 들어갔죠.

T: 그것만 봐도 네 마음을 스스로 조금씩 잘 조절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런데 네가 화나는 마음을 조절하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 소리 지르고 울고 책상 두드리 소리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너의 마음은 몰라주고 너의 이상한 행동만 기억하게 되거든. 이렇게 생각을 분명하게 잘하고 말도 또렷하게 잘하는 너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억울하잖니? 좀 더 부드럽게, 용기있게 말로 마음 표현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표현해보자.

처음에는 상담자가 K군의 공격에 방어하듯이 말을 받았을 때는 더욱 거세게 공격하다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상담자가 공감해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니 화내면서 공격하던 K군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장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 한 상담자의 대응이 내담자의 갈등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8회 상담 (10월 13일, 수요일, 14:00~14:50)

주제: K군의 이야기-욕심많은 주막집 주인

T: 오늘은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C: 네, 좋지요. ‘욕심많은 주막집주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T: 재미있는 이야기로구나. 그 주막집 주인의 행동에 대해 넌 어떤 생각을 했니?

C: 나쁘죠. 뭐.

T: 네가 생각할 때 주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니?

C: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T: 아, 그래, 욕심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지. 그럼 욕심이 많다는 건 자기마음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겠지? 만약 네가 그 주인처럼 신통력을 부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C: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처럼 시험칠 때 100점 받게요.

그래도 사회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내가 80점 받을 줄 몰랐거든요. 1학기때는 68점 받아서 속상했는데... 하기는 제가 사회공부에 신경을 좀 썼어요.

T: 그랬었구나. 역시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네 속에 담겨있는 힘이 나온 것이구나. 네가 집중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나도 참 기쁘다.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참 큰 힘을 가진 것 같지?

C: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신경 써서 하니까 결과가 잘 나왔어요.

T: 그래, 집중하면 발휘되는 큰 힘을 다른 일에서도 한 번 발휘해보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넌 놀고 있거나 놀잇감 같은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버리면 네 속의 큰 힘은 약해지고 말지. 안타깝게도...

C: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일기도 써오고 지난주에는 낱말 뜻 숙제도 하고 그랬어요.

T: 맞아, 그랬지. 게다가 체력검사 때도 너의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지. 솔직히 난 네가 1000m달리기 할 때 운동장7바퀴 다 못 돌고 “나 안 해” 하면서 포기할까봐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7바퀴 다 돌고도 여유 있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는 네가 네 몸을 조절하는 힘이 강해졌구나 하고 감탄을 했었던단다.

C: 처음부터 빨리 안 달리고 천천히 달렸더니 끝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T: 그래 참 잘했어. 그렇게 너의 몸을 네가 잘 조절해서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C: 그때는 다른 애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천천히 끝까지 잘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T: 그래, 네 몸을 잘 조절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던 것처럼 마음도 잘 조절해서 생활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

이번 주 들어 K는 친구들과 다룬 일도 거의 없었고 일기와 과제도 해냈으며 체력검사 때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기록을 보였을 뿐 아니라 월말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어 급우들과 교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에 적극 활용해보았다. 그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고 느꼈던 상담자의 기쁨을 K군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또한 그가 가진 내면의 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자기변화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K군 자신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생활속에서의 일화를 예로 들어가며 이야기 했더니 K군의 얼굴표정에서 기쁨과 뿌듯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상담이 마친 후에도 계속 상담자에게 자기가 잘하는 컴퓨터게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때까지 못했던 알림장도 스스로 썼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이야기 참 잘 나누었습니다.”는 인사를 했다.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제 9회 상담 (10월 15일 금요일 14:00~14:50)

주제: 헬렌켈러 이야기- 나의 장점 인지하기를 통한 자신감 쌓기

T: 너 자신에 대해 관찰을 한다 생각하고 너의 장점, 자랑거리를 한 번 적어보자.

C: 아, 그럴까요? 재미있겠어요. (15분정도시간동안 35가지의 장점을 적었다.)

T: 네가 10가지 쯤 써놓고 없다고 고민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금방 너의 장점을 잘 찾아 내었구나. 참 기특하네. 너의 장점을 나에게 하나씩 말해줄래?

C: 이걸 전부다 말하라고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기가 쓴 걸 열심히 들려줌)

T: 아, 그래, 너에게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니 듣고 있는 나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 너의 기분은 어때?

C: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기분이 좋아요.

T: 그래, 그렇지? 참 너 ‘헬렌켈러’ 이야기를 알고있니? 헬렌켈러가 자기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썼는데 몇 개를 썼을 것 같아?

C: 한 500개 정도요?

T: 3000가지를 썼다는 구나. 다른 사람들과 걸모양을 비교해보기만 해도 자랑거리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생각해보자. 헬렌켈러는 너처럼 작은 것에서도 그것이 자랑이다, 행복이다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 헬렌은 나중에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더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 줄 줄 알지. 너도 이렇게 자량이 많으니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네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니?

C: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해 볼게요.

T: 고맙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주어서. 참, 너의 장점을 쓴 이 종이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또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와서 더 추가해서 쓰도 된단다. 100개 까지 한 번 채워서 써 보자.

C: 좋아요. 최대한 빨리 써야지. 선생님 오늘 이야기도 좋았어요.

국어시간에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쓰기를 할 때 K는 자기와 친한 J에 대한 관찰기록문을 썼는데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좋은 점보다는 자기에게 잘 못해주는 점만을 적어놓아서 좋은 점을 다시 써보라고 지도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였고 ‘헬렌켈러’ 이야기를 통해 자기와 타인의 장점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자기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K군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 사랑이 많다는 것과 그렇게 싫다고 말하던 형의 장점도 찾아서 쓴 것과 부모님에 대한 자랑도 빠트리지 않아 부모님과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진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장점을 인지함으로써 자기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여유롭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쳤다.

### 제 10회 상담 (10월 20일, 수요일, 14:00~14:50)

주제 : 파리와 남자(타인이해, 공감의 힘 알기)

T: 오늘 이야기는 <파리와 남자>라는 이야기인데 한 번 들어보렴...

의사와 선생님 두 사람의 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을 알겠니?

C: 의사는 파리가 자기 배속에 있다는 그 남자의 말을 무시했고 선생님은 믿어주고 자기 속에서 파리가 나왔다고 믿게 해줬어요.

T: 그렇지. 그 남자의 말을 믿어준 그 선생님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는 달랐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진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C: 마음의 병이 뭐가요?

T: 응, 파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파리가 자기 배 속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괴로워 하다보니 마치 파리가 날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움직임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마음의 병을 얻은 모습이었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밖에서 잡은 파리를 마치

그 배속에서 꺼낸 것처럼 보여주자 그 마음의 병이 사라졌지?

C: 그래요. 사람 마음에도 다들 병이 있나 봐요.

T: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마음에도 그런 불행의 씨앗이 많이 있겠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까?

C: 울고 싶은 마음, 욕하는 것, 장난 많이 치는 것,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 잘 빠지는 것, 고자질 하는 마음... 뭐 그런거요.

T: 그래,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그 남자의 '파리' 처럼 네 속에서 너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이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 상상속의 파리를 없애니까 마음이 즐겁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들을 없애나가야 할 것 같아요.

T: 그래. 참 좋은 생각을 해 내었구나. 지금까지 나와 이야기하기 시간을 가졌던 것도 사실은 너의 마음속에서 너를 괴롭히는 그 파리 같은 마음들을 쫓아내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알 수 있겠니?

C: 네, 그런데 화가 날 때 참는 거나 공부시간에 맞게 마음조절하기, 이런 거는 이젠 좀 되는 데요. 장난 많이 치고 욕하고 고자질하는 마음 이런 건 잘 안 없어요.

T: 그래, 힘들지. 한꺼번에 마음을 깨끗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네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

'파리와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물들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 알아본 다음 K군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했고 '마음의 병' 이 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가 상상속의 파리를 없애자 마음이 즐거워진 것처럼 K군 자신도 병이 되게 하는 마음들을 없애야겠다는 인식을 해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자신의 문제행동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고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 포용력 면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통찰의 기회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제 11회 상담 (10월 22일, 금요일, 14:00~14:50)**

**주제 : 여기는 마술 상점 입니다.(변화의지 가지기)**

T: 자, 손님, 여기는 마술 상점 입니다. 여기에서는 손님이 갖고 싶은 마음을 뭐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버리고 싶은 마음, 행동을 내놓고 사갈 수 있습니다. 먼저 손님이 버리고 싶은 마음부터 그 목록을 한번 써 보십시오.

C: 이런 마음들을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T: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사고 싶은 마음을 한 번 써볼까?
- C: 상점에 전시되어 있는 마음을 선생님이 먼저 적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살게요.
- T: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내가 적어줄게. 잘 골라서 사보렴.
- C: 사야할 마음이 많네요. 그럼 사볼까요?
- (K는 장난치는 마음을 내놓고 책임감을, 우는 것 - 양보심, 남 탓이라 생각하는 마음-이해심, 빠지는 것 - 집중력, 여자들 괴롭히는 것- 코 후비고 싶을 때 참는 마음,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끝까지 하는 마음, 욕하는 것-도와주기 이렇게 너무도 짝을 잘 맞추어 버리고 가질 마음을 잘 선택하여 사기를 마쳤다.)
- T: 버릴 마음과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잘 연결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재빨리 연결 짓는 너의 생각수준이 참 놀랍다. 이렇게 마음 버리기를 해보니 어때?
- C: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좋네요.
- T: 시원하다는 말이 참 와 닿는구나. 마음 청소를 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
- C: 네, 그래요. 내 마음이 참 든든해요.
- T: 이제 마술 상점에 팔아버린 그 마음은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폐기 처분할게. 그 마음이 불쑥 불쑥 올라오려고 할 수도 있으니깐 내가 뚜껑을 단단히 닫아놓을게.
- C: 좋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은 할게요.

마술 상점 놀이를 하면서 K군은 사고파는 놀이 자체를 즐겁게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버릴 마음과 행동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어 안심이 되었고 가지고 싶은 마음과 버릴 마음을 잘 연결 짓는 모습에서 스스로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상담자는 <마술 상점>놀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버리고 가지느냐에 따라 내 생활이 달라짐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 노력했다.

## 제 12회 상담 (10월 30일 토요일 12:30~13:20)

### 주제 : 나의 동화책 만들기(긍정적인 미래의 모습 상상하기)

- T: 오늘은 나와 함께 “너의 동화책” 을 한 번 꾸며보자. 이젠 너의 미래생활이야기를 상상해서 꾸며보는 건데 너의 생활이 지금과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 11월의 짝과 모둠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과의 생활이나 가족 중 형과의 생활, 부모님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해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한 번 만들어 보는 거야.
- C: 글썸, 좀 부끄러운데요.

- T: 부끄럽다는 건 너의 생활을 바꿀 자신이 없다는 말이니?
- C: 네, 자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어색하기도 하고. 마술 상점에서 사왔던 마음들을 잘 지킬 자신도 좀 없고...
- T: 음, 그렇구나. 그런데 자신감이 한꺼번에 와락 생기지는 않겠지? 조금씩 노력해보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게. 자, 한 번 해보자.
- C: 네, 해볼게요.(상담자가 만들어준 작은 책에 다음주부터 달라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서 글로 적어보았다. '11월의 나', '12월의 나' 까지 적고는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힘들어서 다음번에 추후 상담형태로 해보기로 했다.)
- T: 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너의 미래 이야기를 생각해냈구나.
- C: 좀 부끄러워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 T: 저기 창가에 피어있는 국화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핀 것은 누구의 힘일까?
- C: 국화자신의 힘이겠죠.
- T: 그래, 맞아, 국화자신이 뿌리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운거지. 자라 날려는 스스로의 마음의 힘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운 것 이란다. 네가 저 국화라면 난 무엇일까?
- C: 물, 양분...
- T: 그래, 아마 물을 주는 사람, 햇볕을 잘 쬐이도록 화분을 놓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너의 속에 있는 힘을 스스로 잘 끌어올려서 멋진 꽃송이를 피어내기를 바란다.
- C: 선생님 말씀 들으니 네게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가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 T: 그럼, 할 수 있지. 지금까지처럼 1주일에 2번씩은 못해도 네가 꼭 이야기하고 싶거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렴. 난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 C: 네, 그럼 필요할 땐 제가 상담신청서를 써 낼게요.

상담의 종결회기로써 '나의 동화책' 만들기를 하면서 스스로 보다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의욕을 가지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다. 이번 상담은 K군과의 마지막 상담시간으로 앞으로의 생활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보려는 의지를 다지게 하고 힘을 얻도록 '상상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스스로 연습해보도록 하였다. 자신의 생활이야기책을 만들면서 K군은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 좋아하고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는데 그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상담에 대한 약속을 상담자에게 하는 것으로 보아 상담의 종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이젠 자기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 8. 상담에 대한 평가

이번 상담활동을 시작했던 9월 초까지의 K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K군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행동 면에서는 처음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혐오스러운 행동(코 후비기, 입술 올리기, 이상한 소리내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빨리 말하기, 울면서 화내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기 등)들의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입술 올리거나 이상한 소리내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기 등의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코는 자주 만지고 후비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적인 행동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면에서도 많이 달라져서 울고 소리 지르며 항의하던 것과는 달리 좀 더 정선된 말로 자기생각을 표현하고 끝까지 따져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는 것, 학급에서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가 많아졌다는 것과 그들 사이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고 있어 자긍심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자서 놀거나 책에만 빠져 있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친구와 함께 축구를 하거나 잡기놀이를 하면서 운동기능면에서도 숨어있는 기량을 발휘하여 친구들의 호응을 받았다.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K군 내면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여서 자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점을 발견하고 발휘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인정 받음에서 오는 수용력의 향상에 힘입은 결과라 분석된다.

학습태도면에서는 공부시간 책 준비와 시간마다의 활동과제, 일기쓰기, 숙제 등 과제처리에 관심을 갖고 해오기 시작했다. 이는 모둠 활동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고 모둠구성원이나 좀 더 이해심 있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어머니와의 상담결과 가정에서도 K군 스스로 준비물이나 숙제를 챙기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K군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셔서 오는 억울함과 자기방어본능 때문에 자기 속에만 갇혀 타인을 돌아보고 함께 움직이는 것에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하면서 자기보호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이 조금씩 타인과 주변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중심성을 더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력을 키운다면 이전의 문제아 K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9. 종결이후

상담을 종결할 때 K군이 먼저 필요하면 자신이 상담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 K군이 나 상담자 모두 상담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태이다.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자가 계속 K군의 학습활동이나 정서상태, 급우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시간을 갖고 있다. K군은 수업시간이 시작되면 잠시 잊고있다가도 상담자의 시선을 인식하면 곧바로 수업준비를 하고, 장난감등을 계속 만지고 있다가 집어넣기도 하며 스스로 조절이 안 되어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상담자가 그 물건을 잠시 맡아두곤 하는데 예전처럼 자기물건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빠지거나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과제 다 하면 돌려주실 거죠?'라며 그 시간에 해결해야할 과제를 하는데 현재 K군의 학습 과제 해결력은 약70~80%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담종결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담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한다' 는 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활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친구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을 격려해주면서 K군은 물론 학급 전체 아동들의 공감력 향상을 위한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틈틈이 들려주고 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면 K군은 가장 선명한 눈빛으로 상담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 모두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거름임을 아이들 스스로 알아가게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